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의 제작과정과 기술

안 보 연*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Manufacturing Process and Technology of Korean Costumes Made of Fur and Leather

Bo Yeon An* · Na Young H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08. 4. 7, 심사(수정)일: 2008. 7. 23, 게재 확정일: 2008. 9. 10)

ABSTRACT

From the ancient Korea to the late Joseon Korean fur and leather had been preferred in and out of Korea for their good quality and excellent manufacturing skill. Since Unified Silla (A.D.676~A.D.936) Korean fur and leather were manufactured divisionally by workmen specialized in materials and products, and such manufacturing process was succeeded to Goryeo and Joseon.

Manufacturing of fur and leather was consisted of as follows: hunting and butchering - peeling - beating with a paddle and removing fat - oil manufacturing - drying - tanning, then cutting and sewing, and there was a special caring method. In order to make good fur and leather, each process of manufacturing needed particular techniques and all available methods were tried to have tender fur and leather by using smoking, excrement, lime, vegetable tannin and even cerebral liquid. And also required mouth-chewing and hand-pounding with a lot of time and of labor. Keeping fur's resilience and flexibility, sewing several skins together, even when the after-all-process skin was converted into clothes, was much more difficult than sewing fabric. Thus, the manufacturing cost was as much expensive as skin materials, and the volume of manufacturing of fur and leather was also limited. Therefore, fur and leather must have been popular for scarcity valu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is scarcity must have caused an extreme luxury of fur.

Key words: fur(모피), leather(피혁), tanning(무두질), manufacturing process(제작 과정), manufacturing technology(제작 기술).

I. 서언

인류 최초의 복식 재료였던 모피와 피혁은 직물 생산기술이 발달된 현재에도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그것들이 매우 따뜻하고 튼튼하여 복식 이외에도 생활용품이나 무구(武具)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음은 선사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의 유물과 문헌 기록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그 자체가 고가였으므로 무역품·진상품·공물·사여물의 필수 품목으로 상류 부유층이나 외국 사신들에게 오래도록 선호되었다. 이는 직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움과 미끈한 감촉, 독특한 색감 등이 그들의 미적 취향을 표현하고, 부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피와 피혁 복식이 단순히 독특한 질감의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선호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모피와 피혁 복식의 희소적인 가치는 바로 고가의 재료와 더불어 특수한 제작 공정에서 발생된다. 일례로 『世祖實錄』에는 ‘豚皮 한 장의 값이 10냥이었는데, 그것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비용만 50냥 이었다¹⁾’는 기록이 있다. 또 연산군 때에는 큰 담비가죽 한 마리의 값이 면포 10필 정도였는데, 한 벌의 담비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60마리분의 초피가 소요되었다²⁾고 하니. 모피나 피혁 복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옷 한 벌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 재료비와 수공 비용을 감수해야했다. 다시 말해서, 전문적인 기술력에 의존하는 모피와 피혁 복식 제작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수공업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이고, 자연히 그 가치가 높아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호의 대상이었으며, 값진 선물의 구실로 진상 또는 사여 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모피와 피혁복식의 가치와 지속적인 선호 경향이 그것들을 만드는 수공예적인 제작공정과 전문 기술에서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어렵게도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전해지는 바가 없고 제작과정에 대한 연구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대 출토 유물을 포함한 18~20세기 초의 기술 자료들을 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다루는 기술과 제작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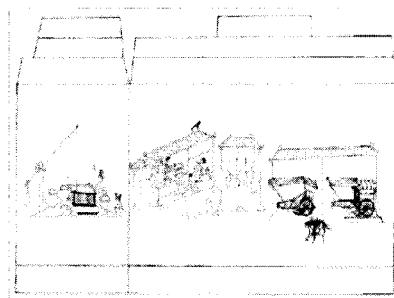
II. 모피와 피혁 제작과정과 기술의 역사

일찍이 우리나라의 모피와 피혁 제작 기술은 고조선 때부터 고도로 발달되어 국내에서 가공된 皮毛物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³⁾. 고구려의 갖바치 수류기와 노류기는 일본으로 건너가 고구려의 가죽 가공기술을 전하고 일본의 가죽가공업을 발전시켰다⁴⁾. 安岳 2호분의 西壁 人物群像圖의 텔웃과 텔모자를 착용한 여인을 통해 고구려의 모피와 피혁 복식의 생산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백제에서도 대외 교역품 중 모피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통일신라 역시 질 좋은 가죽과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출하였다⁵⁾. 특히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요·5대10국·금·원 등 북방의 주변 국가와의 무역이 빈번하게 행해졌으며, 다양한 모피와 피혁과 그 가공품들이 거래되었다. 국내의 모피와 피혁 가공은 적어도 통일신라 때부터 皮典·打典·皮打典·鞣典·鞣典⁶⁾을 두어 재료나 제품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업화되었으므로, 수출용 모피와 피혁은 장인들의 전문적인 기술에 의존한 세밀한 작업을 거쳐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인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으며, 장인제도가 정립되면서 모피와 피혁 복식을 제작하는 기술까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우수한 기술은 현존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던 수공업이 민영수공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수공업자들은 狗皮契·虎豹皮契·獺皮契·各塵契 등의 계를 조직하여, 조직 내에서만 기술을 전수시켰다⁷⁾. 일부 犀皮匠·豚皮匠들은 그 기술과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들은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해 기술을 밝히지 않다가 목숨을 잃을 정도였다⁸⁾. 모피나 피혁 장인들이 폐쇄적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사회적인 분위기 탓도 있다. 고려시대만 해도 불가에서는 살생을



〈그림 1〉 고조선 가죽장화.
사회과학연구소 (1989). 조선고대사, p. 45.⁹⁾



〈그림 2〉 고구려 안악 3호분 肉庫圖 훈연제혁법.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지역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p. 29.¹⁰⁾

금지 하였고, 유교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에는 털, 가죽, 피[血]에 터부사상으로 모피와 피혁을 다루는 장인들을 천시하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모피와 피혁에 대한 높은 선호 현상과 반대로 된 전수자를 찾고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불균형이 조선 중후기 극단적인 모피사치 풍조¹¹⁾를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III. 모피와 피혁의 제작과정

모피와 피혁의 제작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털가죽을 다루는 전처리 가공작업이고 하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적어도 통일신라 이후로 원피를 다루는 가공작업과 본격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분업화되어 있었다¹²⁾. 그러나 각각의 제작 과정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설령 대부분의 작업들이 각각의 장인들에 의해 분리되었을 지라도 모피와 피혁을 다루는 사람은 모든 과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했다.

1. 모피와 피혁의 가공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원피를 가공하였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초기 원시 문명의 경우, 짐승의 털가죽에는 주술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어 그 힘을 전승받기 위해 역한 냄새가 나는 皮衣를 착용하기도 하였는데¹³⁾, 우리나라 역시 주술적인 목적으로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주술적인 용도로 사

용했던 모피와 피혁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취를 없애기 위한 일련의 가공과정을 필요로 했으며, 가공과정은 악취뿐만 아니라 지방을 없애 가죽면을 반드시 하게 다듬기 위함이었다. 그래야만 바느질 작업이 잘되고, 제품이 완성된 후에도 고유의 촉감과 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우리나라의 모피와 피혁을 다루는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그림 1〉은 고조선의 청동단추가 달려 있는 가죽장화이다. 이외에도 삼국시대 말안장·신발·칼집 등 여러 종류의 가죽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다양한 형식의 유물들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고도의 가죽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작업 모습은 〈그림 2〉의 고구려 안악 3호분의 肉庫圖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벽화의 장면은 박피가 끝난 뒤, 살과 가죽을 분리하기 직전에 냄새를 없애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미 剥皮된 동물들은 잡은 짐승의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 훈연하였을 수도 있지만 아직 털가죽과 살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식 또는 생활용품으로 털가죽을 쓰기 위해 부드럽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가죽에 연기를 쏘이는 것을 후대에는 ‘김 박는다’라고 하며¹⁴⁾,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가공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고대 모피와 피혁의 개략적인 가공과정은 19~20세기 초 기술서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렵과 도살 - 박피 및 생려 - 전타 및 탈지 - 제유 - 건조 - 무두질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가공단계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수렵 및 도살

우선 모피물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수렵과 도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 좋은 모피를 얻으려면 반드시 추운 날씨가 시작되는 10월에서 정월 전에 잡아야 한다. 각종 동물들이 여름에는 털갈이를 하므로 시기를 잘못 잡으면 털이 빠져서 모피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계절과 상관없이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직후의 동물들도 모피의 질이 떨어지므로¹⁵⁾, 이 시기를 피해야 질 좋은 모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동물들을 잡을 때는 주로 타격법을 사용하는 데¹⁶⁾, 일단 동물을 잡으면 곧바로 털가죽의 일부를 절개하여 피를 뽑아야 한다. 피를 뺄 때에는 한 쪽을 매달아 피가 빨리 빠지게 해주어야 하는데 털에 피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대로 다음 단계인 박피·생려 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처럼 원피를 얻는 과정은 피를 만져야 험한 작업으로, 조선시대에는 주로 백정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적어도 조선 초기에는 去骨匠과 津人이 있어 이를 전담하였다. 특히 身良役賤人 去骨匠¹⁷⁾은 도살을 전업으로 하였고, 도살 특허권을 가진 津人們도 있었다. 성균관 소속의 津人¹⁸⁾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도살만을 전업으로 하는 도살장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도 이들은 인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중·저질의 작은 동물들을 도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剝皮·生戾

체온이 식으면 털가죽을 벗기기가 어려워지므로 도살 후 체온이 식기 전에 통째로 벗긴다. 아무리 좋은 가죽이라도 칼자국이 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간혹 쓸 수 없게 되므로, 가죽을 벗길 때 칼집이나 칼자국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박피를 하고 나면 털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이기는'¹⁹⁾ 공정이 필요하다. 털가죽을 이기는 작업은 도살하는 당일 마치는 것이 좋지만, 후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털가죽을 말렸다가 반드시 처음 모양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작업을 생려라고 한다²⁰⁾. 생려는 나무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가죽을 넣고, 하루나 이틀 쯤 담가 두는 것이다. 박피와 생려 작업은 모두 도살 직후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도살장들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본다.

3) 銓打 및 脫脂

이 과정은 가죽에 있는 기름과 살덩이를 벗겨내는 작업이다. 생려 작업을 마친 가죽이 원래 모양으로 되었으면 가죽을 銓刀臺에 놓고 털이 있는 곳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칼로 밀어주는데 이것을 속칭 '친'이라고 한다²¹⁾. 가죽을 밀 때는 반드시 가죽의 꼬리 쪽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또 작업자의 손으로 털가죽의 맨 끝을 일그러지게 잡으면, 나중에 가죽을 재단할 때 엷은 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민 것은 전도대 위로 넘기고, 배로 가죽이 들리지 않게 고정시켜 반드시 칼은 전도대와 수직으로 해야 한다.

북[鼓] 제작 시 가죽 다리는 과정에서도, 넓은 소 가죽을 장대 위에 걸쳐놓고 장두칼로 털이 있는 부분을 문질러 털을 뺀다고 하였으니²²⁾, 이 과정에서 원피를 모피용으로 쓸 것인지, 피혁용으로 쓸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다 친 다음에는 기름을 빼야하는데 이때 털에 붙어있는 오염물까지 제거된다.

다음의 <표 1>은 털가죽을 다리는 공구로, 주로 가죽을 미는 전타 작업에 사용된다. 모피나 피혁을 재료로 하는 옷이나 북을 만들 때에는 전타와 무두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가공 공정이다. 다만 가공 후 재단 모양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명칭만 다를 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의 곡선형의 칼날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질긴 털가죽을 깨울 때 직선형보다는 곡선형의 칼과 지지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무두질 도구인 무두·무디도 마찬가지이며, 곡선형 도구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繢製 작업에 사용되었던 石刀·石爸·石匙 등²³⁾에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4) 製鞣

제유과정은 모피와 피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천연재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는데 주로 동물의 배설물, 명반·

<표 1> 가죽 다루는 공구

털가죽을 다루는 공구 ²⁴⁾			복 제작 과정 중, 털가죽을 다루는 공구 ²⁵⁾		
-	-	-	회통		회통은 회와 닭똥을 오줌에 버무려 사용하는 나무통.
銓刀臺 (반월대)		나무를 절반으로 나눠 이 위에 모피를 놓고 銓刀로 밀어 낸다.	반침대		가죽의 털을 제거할 때, 밑에 밟치는 공구.
무두틀		직경 34寸 정도 되는 나무를 매끈히 하여 무두질 할 때 사용한다.			
銓刀		안쪽으로 굽은 날은 반드시 양면이어야 하고 가죽 안에 살과 기름을 밀어내는 데 사용한다.	장두칼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칼로,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는 반달모양 칼.
무두		뽑았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쇠날로 가죽 안을 꺾고 무두질하는데 가죽질을 결정짓는다.	무디	-	가죽의 털을 제거하는 공구로, 복제작에만 볼 수 있다.
-	-	-	작기	-	복 양편의 궁판 가죽을 써울 때, 가죽 늘이는 공구.
판상		판상 위쪽으로 肉面을 적당히 펼쳐 놓고 못을 박는다.	챙판		가죽을 넓여 말리는 판으로 녹슬지 않는 걸고리를 써야 한다.

소금·초산과 함께 식물성 탄닌산 등이 활용되었다.

초기의 제유방법으로는 앞서 보았던 <그림 2>의 훈연법과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는 제유법이 있다. 고대 바빌론에서도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였는데²⁶⁾,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사용되는 전통 방식이다. 복[鼓]공예 전수자 윤덕진옹(중요무형문화재 제63호)은 전통적인 가죽의 제유 과정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피를 물에 씻어 핏물을 제거하고 백회·닭똥·오줌을 서로 혼합하여 죽처럼 누르스름하게 반죽을 하는데, 그 양은 백회는 소가죽 한 장에 자루바가지로 세 바가지, 닭똥과 오줌은 두 바가지로 잘 섞는다. 석회의 회성분(양잿물), 닭똥의 질소분, 오줌의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 가죽에 기름을 제거하고 반대쪽에 있는 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털가죽 생산량이 많은 함경북도 북부 산간 지대에서도 짐승의 가죽을 이길 때, 개나 비둘기·닭 등의 배설물을 썼다고 한다²⁸⁾. 특이하게 개의 뇌를 비롯한 짐승의 뇌를 가죽의 안쪽 면에 반복적으로 바르거나 비벼 쓰기도 했다²⁹⁾. 이상의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물의 체액이나 배설물은 가장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鞣材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도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털가죽을 빼어서 명반·소금[食鹽]·白米粉(혹은 밀가루)를 탄 물에 담가 두는 것이다³⁰⁾. 45일 정도 소요되므로 신속한 처리방법은 아니지만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진전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고대 인도·바빌로니아·이집트 등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었다³¹⁾.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몽고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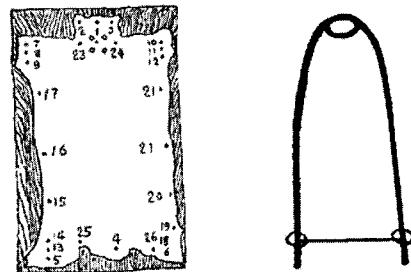
을 받아 천연유지나 명반 사용³²⁾과 함께 醋酸을 사용하는 방법도 전래되었다. 그러나 『林園十六志』기록을 보면, '여우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산에 삶는 법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裳를 해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³³⁾'라고 한 것으로 보아, 끓인 초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명반은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가죽을 강하고 단단하게 해주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식물성 탄닌산도 효과적인 유제였다. 이 방법은 탄닌이 많은 떡갈나무나 버드나무의 나무껍질을 우려낸 물에 텔가죽을 담가두는 것이다. 탄닌 성분은 텔가죽을 탄력 있게 해주며 방수 효과도 줄 수 있다³⁴⁾.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이후부터 수목의 수피에 함유된 식물성 탄닌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참나무 수피나 떡갈나무 수피·오배자 등을 사용했다³⁵⁾. 식물성 탄닌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었지만, 근래까지도 소금이나 명반이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보편된 방법은 아니었다.

5) 전조

동물의 모피처리는 꽤 어려운 것이라서 벗겨낸 가죽은 매우 부드럽게 보이지만, 기름을 빼고 제유 공정을 거쳐도 다시 마르면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무두질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텔가죽을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피와 피혁은 쉽게 딱딱해지므로 잘못 말리게 되면 형태 잡기가 쉽지 않고, 안쪽에 습기가 남아 있게 되면 해충의 피해를 받게 된다. 빨리 말리려고 햇볕이나 불을 쪼여 말리게 되면 가죽 표면은 마르고 내면은 마르지 않아 텔가죽의 가치가 떨어져 못쓰게 된다.

근대까지 사용했던 건조 방법으로 떨쳐 말리기법 [板張法]·통가죽으로 말리는 법·염피법·염건피법 등이 있으며 <그림 3>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떨쳐 말리는 방법은 텔가죽을 통으로 벗겨 판상 위에 떨쳐 놓고 가죽의 생김새대로 자연스럽게 당겨서 일정한 순서대로 못을 박을 박는다. 텔가죽이 완전히 고정되면 그늘에서 말리고, 못을 제거한 뒤에 텸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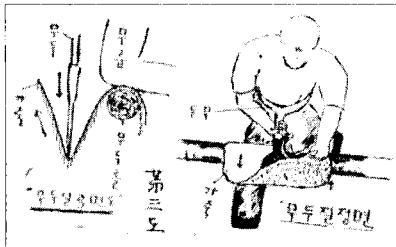
<그림 3> 판상과 개장기,
金炯淑 (1939). 토서 가죽 배시는 法, p. 43.³⁶⁾;
한창수 (1976). 토끼털가죽 다루기, p. 13.³⁷⁾

을 햇볕에 잠시 쪼여준다. 통가죽으로 말리는 방법은 통가죽 안쪽으로 건초·짚을 넣거나 혹은 개장기를 이용하여 안을 팽팽하게 한 다음, 말리는 방법이다. 역시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에 매달아 말린다. 염피법·염건피법은 건조할 시간이 없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죽에 붙은 기름·피·살덩이를 제거하고 텔가죽의 안쪽에 소금을 뿌려 말리는 방법으로, 가죽 안에 있는 물이 빠질 때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무두질

무두질은 가죽 한 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몇 시 간씩 문질러야 할 정도³⁸⁾로 공력이 많이 들지만 작업 효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모피와 피혁을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충동원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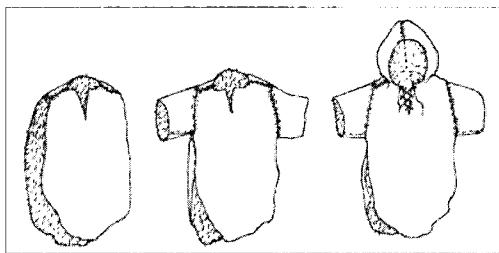
일제 때 발간된 『農業生活』에 나오는 무두질 방법 (그림 4)³⁹⁾과 같이, 다 건조된 텔가죽에 물을 입으로 뿜어서 축축해졌을 때 경석으로 잘 문지르거나 발다듬이 하듯이 발로 밟는다. 텔가죽은 유통불통하고 거칠기 때문에, 경석으로 문지르는 방법이 무두질의 효과가 더 좋다. 이처럼 물리적인 힘을 가해 무두질 하는 방법들은 구석기인들이 딱딱해진 모피를 손으로 주무르고 천이나 늪[沼]에 담가 곤봉으로 세게 때리는 방법이나 최근까지 에스키모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다표범의 가죽 등을 이로 씹는 방법(그림 5)⁴⁰⁾과 같은 원리이다. 마른 가죽은 탄력이 없어 힘을 받으면 쉽게 찢어져 버리므로, 물리적인 힘을 주기 전에



〈그림 4〉 무두질 작업 모습,
金炯淑 (1941). 簡易毛皮 낚이는 법, p. 27.



〈그림 5〉 씹어서 무두질하는 모습,
井上泰男 (1992). 衣服の民俗誌, p. 39.



〈그림 6〉 초기 모피복,
이화연 역 (1968). 의복, 제 2의 피부, p. 544)

반드시 물에 적시거나 촉촉하게 해주어야 한다. 두드리거나 때릴 때에는 가죽을 팽팽하게 잡고, 문지르는 도구를 최대한 가죽에 밀착시켜야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을 만들 수 있다.

한편 〈그림 5〉는 마른 가죽을 침으로 촉촉하게 유지해주면서 이로 씹어 무두질 하는 기발한 방법이다. 이것은 작고 얇은 가죽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가 많아 없어질 정도로 힘든 작업이다. 또한 이것은 씹는 과정 중에 침 속 효소의 작용도 동시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모피와 피혁의 재단과 봉제

모피 봉제는 여러 조각의 가죽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우선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소재를 봉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모피 봉제는 가죽 면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방향, 어떤 순서로 봉합해야 毛長이나 毛色이 천연의 모피 형태에 가장 가깝고 자연스럽게 보이느냐를 습득하기란

상당한 기술과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게다가 모피 고유의 유연함과 탄력성으로 인해서 시접을 많이 두지 않으면 쉽게 찢어지며 다시 쓰기 어렵다. 특히 모피물은 가죽 면 쪽에서 봉제하기 때문에, 겉으로 뒤집으면 봉제선을 따라 털이 안보이게 되어 모피 자체가 손상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방형의 布와 다르게 모피는 부정형 원피를 사용하므로 같은 크기의 옷을 만들지라도, 포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듈다. 한 벌을 만드는 데 여러 장의 원피가 필요하며 본격적인 제작과정에 앞서 각각을 연결하는 전처리 작업만 보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세심한 기술력과 무한한 수공력을 필요로 한다. 모피와 피혁의 재단과 봉제는 직물작업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것이다.

인류가 처음 모피를 착용했을 때에는 봉제는 물론이고 재단조차 하지 않은 채, 어깨나 허리에 두르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구석기말에서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선별된 재료를 가지고 골침과 筋絲를 사용하여 가죽을 서로 엮여 옷을 만들게 되었고, 오늘날 손바느질 작업으로 털가죽 옷을 제작하고 있는 내륙부의 에스키모인들도 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그림 6)⁴²⁾. 초기의 모피복은 재단된 두 장의 가죽 끝에 동물의 뼈로 만든 일렬의 구멍에 동물의 힘줄을 끓어 연결한 정도였다. 그 후로 머리에 구멍을 낸 바늘이 등장하게 되면서 '끈 휘감치기'에서 '꿰매기'가 가능해졌으며 바늘땀도 작아지고 실도 가늘어져갔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만에서 1만 년 전, 최후의 빙하기가 끝난 홍적세 말기부터 후빙기에 걸친 시기로⁴³⁾ 직물이 생산되기 전의 봉제법이었다.

고대 털가죽의 봉제방법은 몽골의 흥노 무덤에서 출토된 털·가죽 제품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다르항

의 제3호 흥노 무덤에서 출토된 옷 조각은 텸이 붙어 있는 가죽옷 조각⁴⁴⁾인데, 이것은 3mm정도의 간격을 두고 누빈 것이었다. 두 가닥으로 단단히 짠 양털실을 사용하였으며, 옷은 한살 밖이 말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바잉홍고르 아이막[部] 갈로트 솜[郡]의 흥노 무덤에서도 얇은 양가죽 혹은 염소 가죽으로 제품의 가장자리에 일정하게 퀘맨 바느질 구멍이 남아 있는 유물도 발견되었다. 한편 도릉고비 아이막 이흐·헤트 솜 허선·오하라 지역에서 출토된 말 재갈의 가죽 끈⁴⁵⁾에는 매우 단단하게 짠 양털실에 기름을 발라 사용한 것이 출토되었는데, 바늘을 퀘멜 때 앞쪽에서 한번, 뒤쪽에서 한번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 바느질하였다. 특히 이것은 끝이 3개인 송곳으로 가죽에 균등하게 구멍을 뚫은 다음 퀘맸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고대 흥노족의 정교한 봉제기술은 우리나라 고대유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합천 옥전고분군·부산 복천고분군·경산 임당고분군 등에서 다량의 가죽끈들이 확인되었고⁴⁶⁾, 최근 발굴한 공주 수촌리고분군⁴⁷⁾과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⁴⁸⁾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 구멍을 내어 주철을 한 가죽끈으로 연결된 가죽편들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고대 흥노족의 가죽 봉제술과 매우 유사한데, 우리나라의 고대문화가 북방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몽골에서 거렵·복을 만들 때, 우리나라 전통 가죽신을 만들 때에도 먼저 송곳으로 두꺼운 가죽을 뚫어, 빛나는 제모에 밀랍을 친 면사를 매어 맞바느질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⁴⁹⁾.

털가죽 생산이 발달된 고조선·고구려에서도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제품들이 생산되었을 것이다. 또한 신라에서는 공방에 가죽 다루는 工匠의 존재를 통해서 모피와 피혁의 재단과 봉제술이 전문적 수준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의 甲房에서도 가죽으로 각종 갑옷⁵⁰⁾을 만들었고, 상의국에 가죽을 재료로 하는 帶匠·鞍匠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서울과 지방에 모피장이 있었으며 민간에서는 직접 짜어입기도 하였지만, 구한말이나 일본 제국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 서울의 안국동 화신 앞에 이르는 전도의 거리에 ‘모전’이라고 해서 각종 텸들을 갖추

어 놓은 상가들이 있었다⁵¹⁾. 이곳에서는 광폭을 댄 갖저고리에 어느 텸을 넣어 달라고 하면 원하는 텸을 여러 조각 이어 저고리 모양대로 넣어 주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모피와 피혁 복식의 제작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헌기록들이 있다. 『中宗實錄』⁵²⁾에는 가죽은 통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르고 잘라서 쓰며, 튼튼한 가죽은 그 길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어서, 3~4尺의 가죽이라도 쓸 수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가죽은 여러 조각을 모아 연결한 상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작은 조각까지도 모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肅宗實錄』⁵³⁾에는 갖옷으로 된 갑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주로 소와 말가죽을 재단하여 옷칠을 하여 만들어진 갑주는 매우 튼튼하여 화살촉과 총알이 모두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 철제 갑옷에 비해서 무겁지 않아서 좋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옷칠에는 방습·방수성이 있어 갑옷의 기능성을 높이고, 독특한 향과 미적인 효과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봉제 형태에 대한 사료는 적은데, 『星湖僊說』⁵⁴⁾에 가죽 배자에 관한 구절이 있다. 가죽 배자는 긴 배자와 흡사하여 양옆을 티우는 것이지만, 갖옷의 경우에는 양쪽 겨드랑이를 마주 퀘맸다고 기록하고 있어 가죽배자의 경우에는 양옆을 완전히 막아 바느질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배자라고 할지라도 직물로 만든 배자와 그 형태가 달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피와 피혁으로 된 복식류는 주로 덧입었기 때문에 팔 길이·품·길이가 모두 원래의 치수보다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만큼 본천 보다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갖저고리의 경우, 팔 길이는 손등이 살짝 덮이는 정도, 품은 안 저고리가 편안할 정도, 길이는 저고리 보다 8~9寸 만큼의 여유분이 필요하다⁵⁵⁾. 따라서 대개의 저고리 길이가 25~30cm정도⁵⁶⁾인데 비해 갖저고리로 만들면 50~60cm 정도가 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해서 평양에서는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지어 입었다. 그리고 텸을 이을 때는 무명실로 촘촘히 감치는데 무명실은 매끄럽지 않아서 가죽을 퀘매기에 적당했으며, 텸이 아래로 누이게 한 가죽의 안

쪽에 찹쌀 풀⁵⁷⁾을 바른 광목을 붙여 사용하였다⁵⁸⁾. 천 배꼽은 털가죽 안쪽에 남아있는 지저분한 연결 흔적들을 가려주고, 광목안감은 착용감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모피와 피혁 복식이 완성되면, 그 자체는 유기물 덩어리이므로 각별한 관리방법도 필요하다. 고가의 모피를 해충의 손상으로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털가죽을 관리하는 제용감에서조차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⁵⁹⁾. 조선 후기에 들어 『閨閣叢書』나 『五洲衍文長箋散稿』등의 실용서에는 모피를 어떻게 관리하고 손질해야 오래도록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지 털 간수법에 대해서 연구되기도 하였다.

『閨閣叢書』에서는 담비털이나 쥐털 등 털 달린 것들은 가는 대[竹]나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 자주 별을 쪘어 주면 털이 잘 상하지도 않고 장마에도 탈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때가 타서 더러워졌을 때에는 흰 무명 장갑을 긴 손으로 쌀이나 찹쌀을 뿐은 고운 가루를 묻혀 털에 비벼 마른 상태에서도 때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五洲衍文長箋散稿』⁶⁰⁾에서는 양피에 때가 탓을 때에는 돼지 말굽을 삶은 뜨거운 물로 씻으면 때가 빠지고, 봉사를 달인 물로 씻으면 좀이 생기지 않으며, 좋은 소주를 양털 위에 뿐어 멱쌀가루 혹은 콥쌀로 닦아내면 털빛은 다시 새것처럼 된다고 하였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평상시에 신지 않는 가죽버선을 집안의 아궁이 위의 벽에 매달아 두고 아궁이에서 뿐어 나오는 연기에 쏘여 좀이 스는 것을 예방하였고, 다시 신을 때에도 돼지기름으로 문질러서 뺏呖해진 가죽에 윤을 내고 부드럽게 하였다⁶¹⁾. 『續雜錄』⁶²⁾에서는 털가죽을 바람결에 걸어 두었다가 더는 등 반드시 습기를 없애 장기간 보관 시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곤충의 침식과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肉面을 유지로 잘 싸서 나무 상자 등에 보관을 한다. 상자에 넣을 때는 털과 털, 육면과 육면이 서로 맞닿게 한다.

IV. 맷음말

우리나라의 모피와 피혁 복식은 우수한 질과 제작

솜씨로, 고조선 때부터 구한말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작 과정과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모피와 피혁복식의 가치가 그것을 제작하는 전문적인 기술력과 제작공정에서 발생된다는 전제를 두고, 문헌기록이나 출토유물, 그리고 국내외 가죽 다루는 사례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복식의 제작과정을 구체화하고 수공예적인 기술수준을 살펴보았다.

모피와 피혁 복식의 제작은 수렵과 도살·박피 및 생려·전타 및 탈지·제유·건조·무두질의 처리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재단과 봉제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별도의 관리법도 있었다. 질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한 제공정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탄력 있고 부드러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훈연이나 배설물·석회·명반·식물성 탄닌 외에 腦腋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방법들이 총동원되었다. 원피 가공을 마친 모피와 피혁을 옷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재단과 봉제 작업에도 사전의 치밀한 계획성과 숙련된 기술력을 필요로 했다. 질긴 털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내면서, 모피 고유의 촉감과 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모피와 피혁 복식의 제작과정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과 공력이 요구되는 전문수공예 작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이후로 재료나 제품에 따른 전문 장인들의 분업을 통해 각종 모피와 피혁 복식들이 제작되었고, 상고시대부터 꾸준히 축적되어온 제작기술은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복식의 상품가치성을 더욱 높여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世祖實錄 5年 8月 丁丑(28日). 是以 一皮甲之費幾至五十餘匹.
- 2) 燕山君日記 8年 10月 丁未(8日). 貂皮價極昂貴, 一領至直縣布十四.
林闡十六志 卷3 贈用志. 一貂之皮方益尺積六十餘貂僅成.
- 3) 詩經·韓奕·說問解字·管子
박선희 (2004). 고조선의 의복재료-중국 및 북방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학연구, 10호. 단군학회, pp. 141-171.
- 4) 日本書紀 卷15. 仁賢 6年. 六年秋九月己酉朔王子 遣日吉士 使高麗 召巧手者.

- 5) 日本書紀 東野治之 (1989).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p. 316. p. 346.
- 崔在錫 (1994). 輸出品을 통해 본 統一新羅와 日本의 美術工藝. 民族文化論叢, 15.
- 6) 三國史記. 職官誌.
- 7) 萬機要覽 財用編.
- 8) 대동야승. 泰觀察기.
- 9) 사회과학연구소 편 (1989). 조선고대사. 평양: 한마당. p. 45. 중국 요녕성 심양시 칠서구 정자와자 제 3지점 출토.
- 10)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2000). 북한지역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9.
- 11) 안보연 (2005). 우리나라 모피와 괴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p. 80-83.
- 12) 박남수 (1996). 新羅手工業史. 신서원, p. 115.
- 13) 下山晃 (2005). 毛皮と皮革の文明史. ミネルヴ書房, pp. 32-33.
- 안보연 (2005). 앞의 글, p. 8. 〈표 1〉 토텔과 皮衣에 관한 비교 연구 참고.
- 14) 정지연, 남옥희 외 (1992). 우리나라 전통신의 변천과 제작과정에 대한 고찰-朝鮮시대 태사鞋, 雲鞋 제작과 정을 중심으로-. 家政學研究. 명지대학교, pp. 38-39.
- 15) 조원복 (1978). 토끼 도살 및 모피 관리. 농업기술, 1월호. 농촌진흥청, pp. 12-13.
- 金炳淑 (1941). 簡易毛皮 닉이는 법. 農業生活, 13(5). 平壤: 農民生活社, p. 25. 여기에서는 토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만 다른 가죽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 16) 조원복 (1978). 앞의 글.
- 17) 강만길 (1964). 선조 백정고. 사학연구, 18호, p. 509. 이네들은 성균관 소속이기 때문에 '관놈'·'관노'로 불리었으며, 지금의 동승동 일대의 진촌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에서는 우육상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유래한다.
- 18) 承政院日記 574冊 영조 즉위년 9월 26일 병인. 이네들은 불능경직하고 또한 불능행상이라. 도살을 못한다면 5~6삭 내에 모두 사망하거나 유리지환을 당할 수밖에 없다.
- 19) 정운길 (2000). 밀레니엄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낙마다> 익이다> 아기다: 이리저리 뒤치면서 두드리다. 구급방언해. 낙기다[북한어]: 가죽 따위를 무두질하여 부드럽게 하다.
- 20) 金炳淑 (1941). 앞의 글, p. 26.
- 21) 金炳淑 (1941). 앞의 글.
- 22) 김종태 (1990). 韓國手工藝美術. 예경산업사, pp. 288-289.
- 23) 황기덕 (1984). 조선 원시 및 고대 사회의 기술발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165.
- 24) 金炳淑. 앞의 글, p. 25.
- 25) 정동찬 외 (1997). 전통과학기술 조사연구(V)-목공도구. 가죽다루기. 국립중앙과학관 학술총서 (18). 국립중앙과학관.
- 김종태 (1990). 앞의 글, pp. 325-326.
- 26) 韓桓洙 (1988). 괴혁산업의 유래. 정현사, p. 10. 『함무 라비 범전』에 나오는 제혁공장에 관한 일화가 있다. 제혁공장을 경영하는 어느 남자에게 시집간 신부가 제혁공장의 지독한 악취와 지저분함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바로 이 심한 악취는 제혁공장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배설물 때문이었다.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는 제혁방법은 오늘날의 酵解(bating)에 해당한다.
- 27) 김종태 (1990). 앞의 책.
- 28) 韓桓洙 (1988). 앞의 글, p. 9.
- 29) 황철산 (1957). 구피의(狗皮衣)에 관한 고찰. 문화유산, 5.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p. 58.
- 30) 金炳淑 (1941). 앞의 글, p. 25.
- 31) 韓桓洙 (1988). 앞의 글.
- 32) 韓桓洙 (1988). 앞의 글, p. 14.
- 33) 林屬十六志 卷3 資用志.
- 34) 井上泰男 (1992). 衣服の民俗誌. 문화출판국, pp. 25-42.
- 35) 김영련 (1985). 유폐재료인 탄닌에 관하여. 산림, 9월호. 산림조합중앙회, pp. 54-59.
- 36) 金炳淑 (1939). 토서 가죽 베세는 法. 農業生活, 12(7). 平壤: 農民生活社, pp. 41-43.
- 37) 한창수 (1976). 토끼털가죽 다루기. 새마을, 21. 대한공론사, pp. 108-109.
- 38) 정지연, 남옥희 외 (1992). 앞의 글, pp. 38-39.
- 39) 金炳淑 (1941). 앞의 글, p. 26.
- 40) 井上泰男 (1992). 앞의 책.
- 41) Horn, Marilyn J. (1968).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이화연 역 (1998). 의복, 제 2의 피부. 가치, p. 54.
- 42) 井上泰男 (1992). 앞의 책, pp. 25-42. 내륙부의 에스키모는 순록과 카리부의 모피를 여자들이 이로 씹어 무두질하고, 그것을 동물의 힘줄로부터 얻은 실로 퀘매어 아노락(모자가 달린 등산 스키용 외투) 형태의 옷을 만들었다.
- 43) 井上泰男 (1992). 앞의 책.
- 44) 데체벤도르찌, 쇼가르 라이오쉬 (1995). 몽골 지역의 일부 흥노 무덤에서 출토된 털, 가죽 제품과 씨앗에 대해서. 한국민족학연구, 2월호.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p. 87. p. 98.
- 45) 위의 글, p. 89. p. 109.
- 46) 張京淑 (2005). 한국 고대 갑옷과 투구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77~208.
- 47)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 발굴한 공주 수촌리 II-1호분 출토 살포에서 대형 가죽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2005년 10월 11일 보존처리 작업과, 2007년 7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의 '그리운 것들은 땅 속에 있다' 특별전에서 공개되었다.
- 48) 전남대학교박물관 (2006). 고종 안동고분 시굴조사 회의자료(2006년 3월 25일).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유물들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 중이며, 보존처리 중에 5세기 무렵의 온전한 상태의 가죽편이 확인되었다.

- 49) 정지연, 남옥희 외 (1992). 앞의 책, pp. 38-39. 제모는 솔목이라고도 부른다. 산돼지털인데 면사 끝에 메어서 바늘대용으로 쓰고, 수포석으로 제모 끝을 다듬는다.
- 50) 高麗史 卷79 志33 農桑, 遣錦綺維織甲坊匠手(하략), 卷107 列傳20 權眞, 各甲坊貢獻(하략).
- 51) 뿌리깊은 나무 (1989), 겨울 한복, 대원사, p. 112. 갖 저고리를 만들 때, 겉감에 광목을 대어 안감 없는 흘 저고리를 짓고 나중에 텔과 광목을 맞붙이게 된다.
- 52) 中宗實錄 37年 8月 壬辰(15日), 皆不以全皮用之 而裁割用之也 而又皮之堅韌 不在於長短 則三四尺之皮 亦可用也.
- 53) 肖宗實錄 21年 7月 戊寅(18日), 以牛馬皮裁多漆 作爲 甲冑 (중략) 比物輕不重.
- 54) 星湖集說 卷15 萬物門 服飾門裘條, 衣如今道服 斜領交襠 與今長褶子略同 其異者 背子 開勝 衣則 縫合 兩腋也.
- 55) 뿌리깊은 나무 (1989), 앞의 책, pp. 105-112.
- 56) 유희경 (2002).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 490-493. 조선초기의 안동김씨의 저고리의 길이는 58cm, 광해군 중궁 유씨의 저고리는 98cm나 된다. 한편 18세기말에는 17~18cm 정도로 보다 단소화되었다.
- 57) 문헌에 등장하는 배접용 접착제의 종류에는 콩풀, 밀가루풀, 밤풀, 참쌀풀 등이 있다. 이 중 참쌀풀의 접착력이 가장 떨어지는데,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명반과 끈끈한 나무 수액을 함께 넣은 참쌀풀을 만들거나, 찰밥을 으깨서 쓰기도 했다.
- 58) 뿌리깊은 나무 (1989), 앞의 책, p. 110.
- 59) 世宗實錄 13年 3月 戊寅(14日), 成宗實錄 16年 2月 戊寅(26日), 24年 6月 丁亥(25日), 24年 12月 壬戌(2日), 中宗實錄 20年 10月 己亥(14日), 23年 1月 癸巳(20日).
- 60) 五洲衍文長箋散稿.
- 61) 진성기 (1979). 제주민속의 멋. 열화당, pp. 11-16.
- 62) 대동야승, 속잡록, 예단을 포장한 유지가 전에는 (중략) 그 수량을 점고한 並匪· 달匪 등의 물건은 바람결에 걸어놓았다가 털고.